

실속 재테크

금융자산 늘리기

카드·펀드 이체 실적따라 이자 '쑥쑥'

농협 '콤보'·우리銀 '아이터치' 금리 혜택
즉시연금 10년 이상 투자시 100% 비과세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 3%의 인플레이율이 25년간 계속된다면 100만원의 가치는 약 48만원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이용하자=금융상품의 수익을 깎아 먹는 것이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때문에 수

익률 못지않게 절세도 중요한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연동 국제, 토지주택채권, 즉시연금 등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채권 원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와 연동해 원금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투자시 100% 비과세에 가입해도 없다. 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인프라·선박·유전권도 눈여겨 볼만하다.

해외채권도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른 세제혜택, 환차익분 과세 제외 등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채권은 환율리스크가 존재하고 이자소득 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을 잘 분석해 투자를 해야 한다. ◇'도토리' 금리라도 더 받자=은행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저금리 시대라도 안전한 금융자산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찾고 싶다면 예·적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은행 패키지 상품이나 복리상품을 살펴보면 된다. NH농협은행의 '콤보상품'은 카드, 보험, 펀드 관련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최고 2.0%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콤보 통장에 연결된 실적이 많을수록 자매법인 콤보적금과 콤보예금의 우대금리가 올라간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콤보 적금은 1~3년 사이 월 단위 만기를 지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1만~500만원을 입금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 3.83%, 2년 3.89%, 3년 4.01%다.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잘 활용하면 1년 만기 기준 5.33%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 상품은 종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전용 친환경 상품으로 우리터치우리통장, 아이터치그린적금, 아이터치우리예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그린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배가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직장인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0.1~0.3%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샌들도 '자연친화'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3층 나인웨스트 매장에서 나무, 코르크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의 여성샌들이 다양하게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우체국 예금 2월 2천억 줄어

정기예금 만기 도래·금리인상 경쟁 밀려

우체국 예금 잔고가 정기예금 만기 도래와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경쟁에 밀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우체국의 정기예금이 크게 줄면서 지난 1월 -26억원에서 2월 -2184억원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 정지 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우체국에 1년 짜리 정기예금의 만기도래가 집중되면서 인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이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

후 저축은행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 예금으로 몰리면서 2월부터 우체국 예금(3490억원)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 2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예금은 4053억원 늘어나 전달(-229억원)의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형마트 3사 매출 2% 신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의 1분기 평균 매출 신장률이 2.0%에 그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작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은 3.5%, 홈플러스는 3.4%, 롯데마트는 2.8% 각각 신장했다. 이마트는 가공식품(8.3%), 생활용품(8.0%)의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냉장고, TV, 카메라 등 가전제품은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스포츠 관련 제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7% 증가했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연희뉴스

광주은행 F1 입장권 3억원어치 샀다

조직위와 대규모 첫 구매 약정

광주은행이 F1코리아그랑프리 성공개최를 위해 3억 원 상당의 F1대회 입장권을 구매했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오전 전남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송기진(왼쪽)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1대회 입장권 3억원어치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입장권 판매는 물 들어 광주은행이 처음이다. 송기진은행장은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지역 최대 국제스포츠 행사인 F1코리아그랑프리 성공개최를 염원하고 지역과 공생발전하기 위해 이번 입장권 구매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국교회, 상호금융 대출 5조원

전국의 교회들이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원이 2400여개 상호금융회사의 교회대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그 규모가 총 4조9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금감원이 50개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회 대출이 많은 것을 발견, 전체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교회들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회를 증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회사들의 전체 대출규모는 200조원 가량이며 이중 교회가 차지하는 대출비중은 2.5%로 적지않은 규모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apan Home Reinsurance) celebrating 30 years. Features a 30% OF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

Advertisement for Chilman (칠만표 방수제) waterproofing products. Includes a list of services like roof, basement, and exterior waterproof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and Jeonnam.

Advertisement for Daesan Primo (대산프리모) gaskets. Features a 50% discount and introduces a new product. Includes photos of staff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branch.